

# 조선업계, 인도 상선시장 주목

## 정부·기업 등 파트너십 '물꼬'

인도, 정부차원 조선업 육성  
2033년 81억달러 시장 전망  
업계 "다양한 협력방안 모색"

국내 조선업계가 인도의 거대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조선 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며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가 대규모 선박 발주와 조선업 육성을 계획 중인 만큼, 한국 조선사들은 파트너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조선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9000만달러에서 오는 2033년에는 81억2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인도가 1000척 이상의 신규 선박 발주를 계획 중이라 전했다. 현재 1500척 가량의 선대를 보유한 인도는 향후 25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인도 현지 조선소는 현재 28곳에 불과해 신규 상선 1000척 확보를 위해서는 건조 능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나 자국 조선업이 취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 선박을 빌리는 데만 연간 약 110조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자동차 운반선 등을 직접 건조할 수 있어야 이러한 비용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인도 정부 또한 조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오는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특히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 사업장을 방문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전해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각 조선사에서 선박 건조 능력과 조선소 운영체계, 친환경 선박 기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인도 정부의 한국 조선사 방

문에 이어, 한화오션 관계자들이 인도 현지 조선소를 찾은 점이 확인되며 협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 힌두스탄조선소(HSL)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화오션 대표단이 지난 13일 자사 조선소를 방문했다"며 "이번 방문은 선박 건조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HSL은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에 위치한 조선소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국가가 사업 협력의 기회를 찾기 위해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일각에서는 인도와 중국 간 오랜 국경 분쟁의 영향으로 반중 감정이 한국과 인도 간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선박 운영 척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한국 조선사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국내 조선사들도 인도 시장의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디 올 뉴 팔리세이드' 출시

현대차는 15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팔리세이드'를 출시했다. 이번에 현대차가 출시한 '디 올 뉴 팔리세이드'는 모델 하이브리드(HEV)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9인승 모델을 출시하는 등 기존 패밀리카를 선호하는 고객층을 넘어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략한다. 론칭 행사에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동석 사장과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팔리세이드를 함께 소개하며 완벽한 품질을 향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대차

## ESG연구소 "고려아연 이사회 유지해야"

집중투표제 등 찬성 권고

한국ESG연구소가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도를 현재 상태대로 유지함으로써 그동안 경영진이 추진해온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15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ESG연구소는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등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제안한 모든 안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임시주주총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수 상한 ▲집행임원제도 도입 ▲주식액면분할 등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MBK·영풍이 반대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안건에 대해, 모두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해 현 고려아연 경영진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먼저 '이사 수 상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찬성하며 경영진 및 이사회 구도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ESG연구소는 "이사회 수가 적정수로 구성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관변경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발견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사회 몸집이 비대해지는 게 주주 가치 제고에 반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핵심 안건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은 일반 주주에게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설명에선 경영진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ESG연구소는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4명을 찬성하고, 영풍·MBK 측 3명만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한국ESG 연구소는 "고려아연 경영진의 그동안의 경영실적을 고려하고 기존에 수립된 주주친화 정책을 경영안정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예리하게 감독하고 견제할 수 있는 영풍·MBK 측 이사 후보들을 일부 선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한진그룹, 대한항공-한진칼-아시아나 통합 임원 인사

### 우기홍·류경표 부회장 승진... 메가 캐리어 채비

우 부회장 등 대한항공 18명 승진  
송보영 부사장, 아시아나 대표 내정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대한항공 임원진을 아시아나항공에 전면 배치하며 구조적 통합을 넘어 인적 통합에 나섰다.

한진그룹은 16일부로 대한항공과 한진칼, 아시아나항공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은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는 우 부회장을 비롯해 총 18명 규모다. 대한항공의 신임 상무로는 12명이 승진했다.

아시아나항공도 15명 규모의 인사를 실시했다. 신임 대표이사에 송보영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으며, 7명이 신임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



송보영  
아시아나 대표이사 내정자

상무로 선임됐다. 송 신임 부사장은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 전무 출신이다.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국지역본부 여객팀장, 모스크바지점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항공업과 여객 영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임원인사를 통해 통합 항공사로 함께 새

롭게 도약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안전과 서비스라는 근간을 토대로, 통합 항공사로서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항공업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두산에너지빌-국방과학연구소, 항공엔진 개발 맞손

'연소기·시험리그 제작' 과제 수행

두산에너지빌리티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항공 엔진 개발에 나선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연소기 및 시험리그 제작'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도전 국방기술'로 개발 중인 고온화 연소기 개발의 일환인 고온화 연소기 시제작 및 리그 시험을 지원하게 된다. 과제는 오는 2027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항공엔진 연소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리그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통상 엔진체계 개발보다 선행해 제작 및 시험이 이뤄진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 과제를 통해 최적의 연소기를 개발, 항공기를 운영하는 다양한 환경에서 연소기 리그 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 현대차그룹, 전기차 고객관리 강화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전기차 고객 케어를 시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차량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차량 기본 점검과 전기차 안심 점검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심 점검 서비스 통합 운영으로 고객들은 각각의 점검 서비스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차량 전반 및 전기차 핵심 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서비스 항목도 고전압 배터리 관련 시스템 및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중심으로 각 차종에 적합한 점검 항목들을 선별하여 추가 강화했다. 서비스 제공 기간도 기존(8년)보다 2년 늘어나 10년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고객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CCS(커넥티드카 서비스) 라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기아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객 불안을 적극 고려해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차종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 승용·상용·영업용 전기차 가운데 출고 후 10년 이내 차량(사고 시점 기준)이다.

다만,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천재지변 ▲고객 차량 단독사고 ▲사기·고의 사고 ▲모터스포츠 등 경기 중 발생 사고 ▲배터리 개조 등 차량 개조 등에 의한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상 한도 이내 손해는 지원하지 않는다.

/양성운 기자